



**루카**  
윤이형 외 지음

**문지문학상 수상 소설집**

제5회 문지문학상 수상작품집 '루카'가 발간됐다. 문지문학상은 2010년 '웹진문지' 오픈과 함께 '웹진문지문학상'으로 시작, 2014년 문지문학상으로 개칭돼 오늘에 이르렀다. 올해는 수상자 윤이형을 포함해 총 11명의 소설 12편의 소설이 실렸다.

수상작 윤이형의 '루카'는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다. 작가는 그 둘을 둘러싼 사회의 시선 그리고 두 사람이 겪는 내면의 고통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일에는 그 모든 것들이 관여하고 있었다."

문학평론가 강동호는 "진정한 사랑의 구현은 사랑의 실패가 야기하는 침묵, 고독, 고통까지도 아울러야 함을 정직하게 응시하고 있다"고 평한다. 수상작품집에는 이상욱, 정지훈, 이상우, 김덕희, 정용준, 조해진, 황정은, 정소현, 백수민, 손보미 등의 소설이 수록돼 있다.

〈문학과지성사·1만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사랑은 사치일까?**  
벨 훅스 지음

**5포세대 위한 사랑 조언**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희망... 2015년 오늘을 살아가는 20~30대 청년들이 포기해야 할 목록이 점차 늘어간다. 고용불안과 빈곤이라는 경제적 현실 앞에 청년들이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꾸리는 공동체 삶이다.

뉴욕시립대학교 교수이자 문화비평가인 벨 훅스는 '내'가 이기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설정하라고 조언한다. 그녀의 신작 인문서 '사랑은 사치일까?'는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으로서의 사랑을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을 권유한다.

특히 저자는 여성들이 일터에서 경쟁하느라 '사랑'에 등 돌리게 된 현상이 오히려 여성들의 성공적인 삶을 가로막았다고 본다. 여성들끼리, 심지어 엄마와 딸 사이에도 서로 경쟁하게 만든 사회구조가 세대 간 지혜의 전수를 가로막아 여성들의 자리를 계속해서 낮은 곳에 할당했다는 것이다.

〈현실문화·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인류의 운명 쥐락펴락한 동·서양 '뇌물'의 실체

## 뇌물의 역사

임용한 외 지음



"필요와 욕망은 인간의 삶을 동물의 삶과 다르게 만들고, 인류의 삶과 문명을 발전시킨 근원적 축이다. 그리고 그것의 어두운 면에서 자라는 것이 뇌물이라는 말이다. 결국 뇌물은 끊임없는 다스림과 싸움을 요구한다. 뇌물을 수취로 규정하거나 정의하고 판단할 수 있는 완벽한 개념을 마련하려는 노력은 역사적으로 볼 때 모두 실패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이 있었기에 인류는 유지되었고, 발전하는 집단과 부패하는 집단으로 나뉘게 되었다." (본문 중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은밀하고도 거대한 힘이 있다면 무엇일까? 사랑, 결혼, 봉사... 등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을 것이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힘도 있다. 은밀하면서도 강력하게. 이것이 지닌 파괴력은 간단치 않다.

## 국가 몰락시키고 사고 내고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범죄 비리 근절 어렵지만 잘 다스리는 지혜 필요

최근 블래터 FIFA회장은 5선에 성공했지만 다섯 만에 돌연 사임의사를 밝혔다. 블래터는 왜 세계축구협회장 자리를 스스로 벗어던졌을까. 그의 측근이자 FIFA 전 마케팅 고문 쿠도 토그노니의 폭로에 답이 담겨 있다. "수년 동안 FIFA에서는 뇌물만이 유일하게 목표를 달성하게 해주는 수단"이었다

뇌물은 영어로 'bribe(브라이브)'라고 하는데 원래 자선이나 자비심을 베풀 때 쓰는 선의의 물건을 뜻한다. 중세 때는 '선물' 의미로 사용되었다. 영국에서는 '집에 가다가 모자나 사서 쓰라'며 공무원들에게 푼돈을 쥐어주던 관습에서 뇌물로 볼 때 모두 실패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이 있었기에 인류는 유지되었고, 발전하는 집단과 부패하는 집단으로 나뉘게 되었다." (본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떡값'이라는 명목으로 소소하게 건네지는 돈이 관행화되었다. 뇌물이라고 하기에는 적거나 또는 선물이거나 하기에는 대가성이 있어, 다소 경계가 모호하다.

인류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는 뇌물의 실체를 다룬 책이 나왔다. KJ인문경영연구원 임용한 대표, 광운대 교양학부 김인호 교수, 덕성여대 노혜경 교수 3인이 펴낸 '뇌물의 역사'는 진화하고 있는 뇌물의 다양한 면을 다룬다.



뇌물을 받는 조선시대 탐관오리들의 부패상과 민란을 다룬 영화 '군도'.

저자들은 뇌물은 그 어떤 범죄보다도 전염성이 강하고, 사회의 여러 부문을 부패시킨다고 본다. '자신의 필요를 가장 편한 방법으로 얻으려는 행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뇌물은 인류 최초의 범죄군에 포함될 정도로 역사가 깊다고 설명한다. 가장 오래되었고 광범위한 계층에서 가장 많이 저질러지는 범죄라는 것이다. 한 마디로 그만큼 파괴력이 크다는 의미다.

그것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뇌물로 인해 국가의 운명이 바뀌고, 대형 사고가 일어나 전 국민이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어떤 잔혹한 범죄도 이보다 더 큰 파괴력을 가지지 못한다. 고대에서 현대까지 뇌물은 국가가 몰락하는 크나큰 재앙으로 작용했다.

조선의 실학자 성호 이익은 이렇게 말했다. "백성이 가난한 것은 아전의 탐학 때문이고, 아전의 탐학은 뇌물 때문이며, 뇌물이 자행되는 것은 법이 해이하기 때문"이라고.

뇌물 역사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가 십자군 원정이다. 1차 원정 때 십자군은 난공불락의 안티오크를 만난다. 그때 원정 대장인 보에몽은 성의 한 구역을 지키고 있던 수비대장을 매수해 성문을 열게 했다.

쉬운 방법으로 목적하는 바를 얻으려는 것은 본능적인 욕망이다. 뇌물은 이면에 기생하는 암적 존재와 다르지 않다. 이 존재는 진화하는 특징을 지니는데, 필요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일상 속에서 선물의 개념과 혼동되고 만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가 뇌물의 역사, 뇌물과 싸운 역사를 되돌아보는 이유는 뇌물을 근절하는 완벽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다. 뇌물을 다스리고 사회를 보다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찾기 위해서다." <이야기가 있는 집·1만68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정치·사회·예술·산업·의학...공기의 힘



**공기**  
피터 애디 지음

공기의 일반적인 특징은 보이지 않고 실체가 잡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존재하고 유지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공기의 영향을 받는다.

로얄홀로웨이 런던대학 인문지리학과 피터 애디 교수가 펴낸 '공기'는 '보이지 않는 손' 공기를 통섭적으로 바라본

다. 저자에 따르면 공기는 정치, 사회, 역사, 문화, 건축, 철학, 예술, 전쟁, 의학 등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인류 역사 긍정적이며 부정적이며 공기에 대해 영향을 끼쳐왔던 게 사실이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휘발성, 유동성, 압축성, 전도성 등 특유의 성질을 갖는다. 그것이 매타포가 되어 인류의 과학과 사회, 예술 등에 적잖은 영향을 주었다.

책은 크게 두 개의 흐름으로 나누어져 있다. 1부는 고대부터 20세기까지 공기를 탐구해온 개척자들의 발자취를 대략적으로 더듬어간다. 개척자들에 의해 존재를 드러낸 공기가 산업혁명 등의 촉발제가 된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기술되어 있다.

2부는 19세기부터 21세기까지 인류에게 영향을 끼친 공기와, 그 힘을 장악하

려 했던 인류의 욕망을 다각도로 파고든다. 공기역학이 탄생해 새로운 항공술이 일어났고 속도와 기계를 찬미하는 미래파 예술학파도 태동시켰다는 논리다.

그러나 공기는 점차 사람들의 욕망에 의해 점차 계급적이고 종교적인 성격을 띤다. 그뿐 아니라 독가스나 냉동공기, 뜨거운 열기로 변환돼 고문과 전쟁무기로 사용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공기는 인간의 욕망을 비롯해 재앙으로 양갈음하기도 한다.

저자는 공기를 과학의 대상, 정복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공기와 인간의 관계를 역동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일반 과학책과 차별되는 지점이다.

〈반디·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약한 자들의 생존 전략은 '변화'



**이토록 아름다운 약자들**  
이나가키 히데히로 지음

"강자는 살아남고 약자는 멸망한다." 이것은 자연계의 엄숙한 규칙이다. 그렇다면 약자는 그저 손 놓고 멸망하는 수밖에 없는 걸까? 하지만 그저 약하기만 할 것 같은 약자에게도 그들의 생존 전략이 있었다.

잠정생태계를 전공한 일본 시즈오카 대학원 이나가키 히데히로 교수가 자연 생태계 속 약한 생물들의 생존 전략을

답은 '이토록 아름다운 약자들'을 출간했다. 저자는 자연계에서 벌어지는 생물들의 생존 경쟁을 '의자 뺑자' 놀이에 비유한다. 의자의 수는 한정되어 있고 앉으려는 생물들은 수없이 많은 것이다. 하지만 무조건 강자만이 유리한 것은 아니다. 강자보다 더 많은 수의 약자들이 무리 짓기 전략, 숨기 전략 등을 구사해 자신의 의자를 마련하고 있다.

책은 결론적으로 생태계 속 약한 생물들의 생존 전략을 자연 과학적 시각에서 살펴보고 그 전략을 인간의 삶에 연결 짓고 있다. 약자인 그저 '약한 자'가 아니라 '변화하는 자'임을 자각하게 해 준다. <이마·1만2000원〉  
/이보림기자 boram@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게임동 홀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전천후 시공성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외벽 패턴: 대리석외벽, 대리석외벽, 돌나뭇, 스텔라외벽, 석션외벽(아레골드)

※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아트패션시트 카탈로그) 다양하고 아름다운 패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